



新 年 辭

辛酉年 새아침을 맞이하여 먼저 前後方 各地에서 國土防衛에 專念하고 계시는 國軍將兵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感謝드리고, 또한 防衛産業의 高度化指向으로 自主國防의 達成을 위해 獻身的으로 寄與하고 계시는 會員社 全從事員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또한 1981년은 새時代 福祉國家建設을 위하여 民族雄飛의 보람찬 結實을 거두는 榮先된 한해가 되기를 祝願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0년은 實로 國內外的으로 엄청난 經濟變化와 더불어 거듭되는 經濟不況을 克服해야 하는 肅막한 해였고, 특히 學生騷擾事態와 光州事件 등으로 한때는 國基存立에 威脅을 미치는 어지러운 政局이 點綴되었으며, 또한 이에 便乘한 北傀共產集團은 끊임없는 南侵의 野慾妄想을 버리지 않고 온갖 策動과 發惡을 露骨의으로 增加시키며 政局의 混亂을 더욱 加熱化시켰읍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은 조금도 眩惑됨이 없이, 오직 國家安保에 全力投球함은 물론 말은바 課業을 蹉跎없이 達成하는 한편 持續的인 高度經濟成長과 國民生活安定을 指向하는 政府施策에 積極呼應하면서 새歷史創造와 健全한 社會紀綱確立에 率先獻身하였음을 自負합니다.

그리하여 國家安定을 渴望하는 國民 모두의 絶對的 興望에 따라 強力한 領導者로 全斗煥 大統領閣下를 推戴하여 새로운 民主福祉國家建設의 章이 열렸으며, 80年代에 힘찬 前進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에 發展도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精神的 改革을 통한 새로운 時代的 意識을 再定立하고 새覺悟와 透徹한 使命에 立却하여 政府和 企業主, 그리고 勤勞者가 渾然一體가 되어 生産性を 提高하고 能率의 極大化를 達成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防産人들도 自己職務에 더욱 精進하고 經營의 合理化로 生産에 邁進하여 企業成長을 이룩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防衛産業은 名實共히 重工業의 旗手로서, 또한 世界속에 韓國으로 遜色없는 工業立國을 이룩하는 同時에 여러 分野에 걸쳐 北傀와 對決 그 우월성을 誇示, 이길수 있는 힘에 培養이 祖國統一完遂를 위한 基調가 될 것입니다.

또한 「國防과 技術」誌도 어연 誌齡 25號가 되었는데 其間 愛讀者 諸位와 關係當局의 聲援과 支援에 힘입어 長足の 發展을 보았읍니다만 아직도 未洽한 點이 많을 것으로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今年에는 보다 斬新하고 內實化하여 軍事技術情報誌로서 여러분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努力과 誠意를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本誌發刊에 積極協調해 주신 會員社 및 執筆陣 關係者諸位, 그리고 關係當局에 깊은 謝意를 表하며 變함없는 指導鞭撻을 바라오며 여러분의 健闘健勝과 家庭에 幸運이 기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貴部隊(貴社)의 無窮한 發展을 거듭 眞心으로 祝願하는 바입니다.

1981年 1月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 許 亨 勳